제9장

한국 근대유학 연구

김현우

1. 머리말

본 장에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RISS)[1]를 중심으로 대략 19세기 후반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한국 근대 유교 관련 연구 현황을 정리 · 평가하였다. 한국에서 근대라 하면, 굴절된 학문, 굴절된 역사, 굴절된 철학이라는 일종의 콤플렉스가 있었다. 그것은 당시 한국이 근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심지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망국의 통한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과거 근대를 연구하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두려움에 싸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단순히 이와는 다른 각도이다. 이미 전년도 해당 장에서도 일부 언급했지만, 현재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근대에 대한 관심은 대외적으로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구의 몰락과 더불어 비서구권인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의 성장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학의 경우는 특히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화의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세계인들은 더욱 늘어나서 이를 담당하는 세종학당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한류를 중심으로 한 한국 컨텐츠는 인터넷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내부만 모르는 세계화한 한국의 위상은 점차 한국학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요구할 것이며, 특히 수 년내 근대 또는 근대성과 관련한 연구의 심도있는

1 www.riss.kr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학계에서도 이러한 자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5년이 2014년보다 달라진 것은 바로 연구 주제의 변화이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근대성과 관련한 연구이다. 이전에는 주로 중국 근대 유학에서 나타난 근대성 관련 연구가 이제는 한국 유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이고 특히 중국학이나 일본학 연구자들이 한국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부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둘째는 이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과 한림대학교 HK연구단 등은 에릭 홉스봄이 창안한 "장기 19세기"(The long 19th century)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 및 동아시아에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조선대학교 우리철학연구소(소장 이철승 교수)에서는 "우리철학"이라는 주제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으로 근대전환기 한국철학을 '我·理·心·實·氣·敎·民·美'의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3년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여기에 한국전통문화대학의 정신문화센터(센터장 최영성 교수)에서도 한국의 전통문화원류를 모색하려는 근대기의 다양한 시도에 대해 연구하고 금년(2016) 11월에 관련한 학술대회를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연구 기획들은 한국학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근대기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영향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근대 유교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 이어 2015에도 지속되었는데, 본 분석과 평가를 통해 보다 질과 양에서 보다 진전하기를 기대한다.

2. 인물별 분석

2015년에는 박은식과 더불어 전우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이외에도 황헌, 이상은, 김창숙, 신채호, 최한기 등 이전에는 연구 성과가 미진했던 인물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金建佑	한말 유학자의 위기의식과 근대문명 담론 비판	유교사상문화연구 61	한국유교학회
철학	김경호	매천 황헌 – 구한말 유교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	孔子學 28	공자학회
철학	김낙진	경로(卿輅) 이상은(李相殷)의 한국유학 연구 방법과 정신	孔子學 29	공자학회
철학	김세정	한국 성리학 속의 심학	예문서원	2015
철학	김현우	박은식의 기독교 수용과 양지론	陽明學 42	한국양명학회
문학	나종선	艮齋(간재) 田愚(전우)의 序跋文(서발문)에 나타난 世敎(세교)와 道本文末(도본문말)에 대한 考察(고찰)	東方漢文學 62	東方漢文學62
사학	노관범	대한제국기 신채호의 "아(我)" 개념의 재검토	개념과 소통 14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사학	서동일	1910년대 한인의 안동 이주와 접리수 한인촌 형성	한국사연구 171	한국사연구171
문학	이영호	心山과 艮齋 門人들의 出處是非論爭을 통해 본 일제하 유교지식인의 초상	大東漢文學 42	대동한문학회
철학	이혜경	박은식의 양명학 해석	철학사상 55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	이혜경	박은식의 사상전변	철학사상 58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사학	임태홍	근대 전환시기 최한기와 니시 아마네의 학문관 비교	동양문화연구 22	동양문화연구22

박은식 관련 연구는 김현우와 이혜경에 의해서 3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현우는 지속적으로 박은식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이

혜경은 그동안 양계초 등 중국 근대 사상가들을 전공한 연구자로 한국 유교에 대해서는 처음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전우 관련 연구는 박은식보다 한 편 많은 4편으로 김건우, 김경호, 김세정, 이영호에 의해 진행되었다. 김건우의 경우는 전우의 양계초 비판을 중심으로 그의 보수적 철학에 대해 연구하였고, 나종선은 전우의 문학적 측면을 다루었다. 김세정은 저서인 『한국 성리학 속의 심학』에서 심설논쟁의 한 측면인 전우의 심론을 다루었으며, 이영호는 심산과 간재 문인들간의 논쟁을 소개하였다. 특히 이영호, 김낙진, 김경호 등의 연구는 근대를 넘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한국 유교의 현대적 고찰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제별 분석

2015년도 이 분야 관련 연구들은 주로 근대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이전에는 주로 중국이나 동아시아 유교연구에서 나타났고 한국의 유교연구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다. 관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권보드래	특집 근대전환기 개념의 운동과 변주: 1910년대의 "혁명" –3,1운동 전야의 개념과 용법을 중심으로–	개념과소통 15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철학	金璟鎬	탈식민과 한국유교	유교사상문화연구 62	한국유교학회

분야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철학	나종석	전통과 근대 :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30	사회와 철학 연구회
철학	박정심	식민기 부정적 주체의식과 유학인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東洋哲學硏究 83	東洋哲學硏究83
철학	이병태	한국철학과 “modern”	시대와 철학 26-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런 연구 흐름은 한국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서구 근대성에 대한 회의와 대안은 이미 1960년대 유교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 유교 연구와 관련해서는 이에 대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주로 일본, 중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현재 이런 연구 성과들의 출현은 한국의 유교가 한국의 근대성이나 이 지역의 근대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하다는 공감이 연구자들 사이에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유교는 중국이나 일보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주제는 실학파들이나 근대기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이 주장한 실업 또는 실학과 1960년대이후 한국의 산업화를 연장시키는 전통적인 한국의 근대 이해를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근대를 단순히 산업화로 보지 않고 인식의 변화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배경으로 한다. 이에 앞으로도 보다 추론적이고 철학적인 방향의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 유교와 근대성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시도가 출현하기를 기대한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먼저 분석할 연구는 이혜경의 두 편의 연구이다.[2] 이혜경은 중국 근대 연구자로 2015년에도 「양계초와 "혁명" 개념의 전변 - 『청의보』, 『신민총보』」(『인문논총』72 - 2, 서울대 인문학연구원)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한국근대철학, 그것도 박은식에 관한 두편의 논문, 「박은식의 양명학 해석 - 다카세 다케지로와의 차이를 중심으로」(『철학사상』55,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15)와 「박은식의 사상 전변 - 생존과 자존 모색의 도정」(『철학사상』 58,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15)을 발표했다.

전자는 박은식의 『왕양명실기』와 다카세 다케지로(高瀨武次郎) 『王陽明詳傳』를 통해 양자의 양명학을 비교한 연구로써, 이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본고는 그 문제(근대적 지향으로써 '지식'과 '도덕' 중 선택에 관한 갈등)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박은식이 근대의 학문으로 요청한 양명학의 성격이 다카세 다케지로의 그것과 얼마나 , 어떻게 다른지 밝히는 것을 당면의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혜경은 이 차이를 "최소한 박은식은 애국과 충군에 양명

2 이혜경은 원래 중국근대철학 전공자로써, 서울대에서 동양철학으로 석박사 과정을 거쳐 일본 교토(京都)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는 『천하관과 근대화론 : 양계초를 중심으로』(문학과 지성사, 2002), 『량치차오 : 문명과 유학에 얽힌 애증의 서사』(태학사, 2007) 등이 있다.

학을 가두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박은식이 양명학을 수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 박은식 역시 양명학에서 이전과 달라진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다카세와 다를 바 없다. "학문하는 까닭"에 대해 박은식 "자신의 몸을 닦아 … 세상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양명학의 "간단하고 쉽고 진실하고 절실함[簡易眞切]"이 "시의적절"하다고 말한다. 박은식은 량치차오의 말을 빌려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즉 당시처럼 확대되고 복잡해진 세상에 과학을 비롯해 배우고자 한다면 양명학의 "간이진절"한 방법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박은식이 애국과 충군에 양명학을 가두지 않았다고 한 평가에서 충군은 맞으나 애국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1911년 서간도 망명기에 작성한 『몽배금태조』에서는 心 즉 양지를 국가 회복의 원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박은식이 양명학에서 간이직첩(簡易直捷, 위 글에서는 簡易眞切)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한국 유학계의 지나친 사변론 즉 심설논쟁이나 호락논쟁에 대한 비판이지 결코 서구 수용에 대한 이해는 아니다.

박은식은 『왕양명실기』에서 '이전의 양명학은 지나친 사변론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그의 양명학이 추구하는 바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간이직첩 또는 간이진절이라는 표현은 문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전 한국 전통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을 비롯해 이혜경의 연구에서는 양명학의 고유한 핵심적 이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양명학이 주자학과 다른 핵심적 가치는 '格物致知', '知行合一', '親民'의 세 가지이다. 격물치지는 인식론에 관한 것으로 '진아', '진여' 등을 양지와 결부시킨 양계초와 관련이 있다. 『왕양명상전』에서는 용장대오의 이치가 지행합일이라고 주장하고 양지론은 만년설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카세 다케지로의 관점은 바로 지행합일이다. 반면 박은식은 이 둘과는 달리 친민에 가깝다. 그는 「유교구신론」(1909)에서 유교가 가야할 길 중 하나를 '보통국민'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양지를 '천지간에 흐르고 성인과 범인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그는 용장대오의 결과를 지행합일이 아닌 양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혜경은 이러한 차이를 분석해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유교철학과 한국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혜경의 두 번째 논문도 전자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녀는 1. 문제제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본고는 거시적으로 박은식의 사상전변을 좇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주로 박은식의 사상을 영역별로 분류하고 각 영역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박은식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가령 사상전변을 배제하고 '교육과 식산'에 의한 '자강' 사상을 다루게 되면 박은식이 지속적으로 문명론자였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박은식의 양명학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박은식이 주목한 양명학을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처리했다.

박은식의 사상의 근저는 '퇴계학에 기반한 주자학 → 다산학 → 양명학'으로 진행되어 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위 언급대로 교육과 식산, 자강이라는 사고가 가지를 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평가는 최근 발표된 김현우의 「황성신문의 실학 인식」(인문학연구,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의 근대전환기 문명론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이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박은식이 「구습개량론」(1907)이나 1909년 대동교 창설이후 등에서 문명론자들을 비판하지만, 이는 그가 시종 서구 문명 자체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과 구분해야 한다. 오히려 박은식은 서구 문명을 인류 문명의 긍정적 부분으로 이해한 측면이 강하다. 그는 이미 『겸곡문고』에서 동서의 보편성을 언급하고,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에서도 '대동의 기운'을 서구를 제외한 동아시아 즉 유교적 사고라고 한정하지 않았다는 데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박은식이 문명론자들을 비판하고 여기에서 탈피했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그가 서구 문명을 부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도 양계초처럼 서구문명을 비판하고 유교적 전통질서로의 복귀를 추구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박은식과 그의 유교 즉 양명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은식은 양계초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양계초가 양명학을 칸트와 접목시켜 현실을 초월한 중국의 문화적 정체를 발견하고자 했다면, 박은식은 양명학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부정하고 새로운 근대적 독립 국가로의 실천을 추구했기 때문에 양자를 양명학이란 공통의 경계로 한정시킬 수는 없다.

그 밖에 몇 가지를 더 지적하자면, 이 논문은 본문, 초록, 앱스트랙, 참고문헌 등 포함 총 26쪽이지만 박은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양계

초에 관련 내용이 1/3에 해당하는 9쪽에 걸쳐 있어서, 과연 이 논문의 무게추가 박은식에 있는지 아니면 양계초에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동시에 인용과 평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이혜경은 '박은식이 주목한 양명학을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게 처리했다.'는 논문으로 주 11)에서 박정심의 『백암 박은식의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성대 박사논문, 2000)을 들고 있다. 그런데 박정심 교수는 이후 박은식의 다양한 철학사상을 발굴하였고, 동시에 동아시아 근대공간에서 양명학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참고 문헌을 보더라도 최근 연구 성과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연구의 정합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다.

이혜경의 위 두 논문은 박은식과 그의 양명학에 대한 기존과는 다른 패턴의 연구이다. 하지만, 중국 근대 연구에 대한 기존 본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정작 한국근대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왜 양명학이 비판받았고, 근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철학은 어떻게 흘러갔으며, 그 와중에서 박은식의 양명학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논문들이 다루는 내용은 사상 또는 사상사적 부분이 아니라 이들을 일관하는 즉 보다 추론적인 철학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반면 김경호의 연구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근대성과 관련해서 호락논쟁의 호학에 더 비중을 둔다고 말한다. 호학은 한원진의 인물성이론을 계승한 학자들이다. 이는 인간과 사물을 구분하는 인식의 변화가 근대적 가치와 보다 잘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최영진 교수가 한원진의 인물성이론을 '인문주의'로

평가한 것과 유사한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는 『탈식민과 한국유교』, 『매천 황헌 - 구한말 유교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의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연구 주제는 호락논쟁, 심설논쟁을 포함한 근대 유교 담론과 유교지식인의 사고이다. 그는 근현대 한국유교가 식민성과 근대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현대 유교는 이를 극복한 새로운 양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연구는 한국 유교와 근대성이라는 차원의 연구를 보다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김현우의 연구는 이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그는 최근 근대기 종교와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박은식도 이미 대동교라는 유교계 종교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한일강제합병 이전부터 대종교와도 직접적인 관련을 맺어 왔다. 하지만 사상적으로 볼 때 양명학을 포함한 그의 근대 유교는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의 이 논문 「박은식의 기독교 수용과 양지론」은 박은식의 철학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를 비롯하여 성균관대 몇몇 소장 연구자들은 근대시기 기독교를 한국학 차원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주교의 전래가 250년이 넘고, 개신교 역시 130년이 흐른 지금에 있어서 기독교를 어느 때까지 외래종교로 한정시켜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동양철학 연구회의 『동양철학』이나 한국유교학회의 『유교사상문화연구』에 유교와 기독교를 절충한 인물들에 대한 연구의 투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이 분야에서도 진전된 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평가와 전망

2014년부터 한국 근대 유교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 지원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공모한 한국학총서사업에 위에서 언급한 조선대 우리철학연구소 이외에도 선정된 연구주제는 모두 "장기 19세기" 영역에 들어가는 연구들이다. 이런 추세라면 근현대 유교연구도 향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연구가 자칫 한국학의 고유적 정체성을 해치는 것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이글에서 이혜경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본 것은 박은식의 철학은 물론 성리학이나 양명학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중국 근대 철학의 도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근대기 한국학에 대한 연구는 먼저 한국학 고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논자는, 비록 2016년 연구 성과로 올 초에 발간된 박정심의 『한국 근대사상사』(천년의 상상)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에는 한국 근대철학과 사상에 대한 박정심 교수의 기존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관련 연구를 진행함에 앞서 한국철학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학의 국제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학은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이제 세계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특히 서구적 가치에 대한 대안철학으로서의 유교의 역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러한 요구는 근대 또는 현대와 유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는 것들

이다. 때문에 연구자들은 한국 유교의 국제화를 위해 번역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연구자와 교류를 통해 연구자생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